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신국일적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새 창

주한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대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3:21)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남정리 665-1 ☎ 02-552-8200 © 2003 주한총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장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3년도 제 2차 청지기 훈련에 대하여

“위엿 것을 생각하라”

10월 15(수)부터 17일(금)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003년도 제2차 청지기 훈련이 10월 15일(수요일부터 17일(금요일)까지 모든 제직과 봉사자를 비롯하여, 전소)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히 이번 청지기 훈련은 “위엿 것을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사흘간 진행되는데, 바울의 놀라운 회심, 옥중에서 찬미한 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의 영명스러운 모습을 하루씩 차례대로 살펴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하라케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진리에 온 교회가 사모하는 바램으로 참여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선한 청지기의 본분과 사명을 더욱 철저하게 깨달아 다시 한 번 복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날(10월 15일) 바울의 회심 - 행 9:1-22

바울은 모든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리스도의 군사였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아하지 않았던 선한 청지기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사생활을 이해해야 하는 감각과 동정심과 사자감에 거룩함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번 청지기 훈련의 첫째 날에 선포된 메시지는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 그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주의를 끌곤 하였나 그들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여 노력했던 것! 그러나 그 많은 다짐과 노력이 우리에게 참된 위업을 주지 못하였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행하게 주지 않았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처럼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전신하여 핍박하던 그가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다 매세로 주는 길 위에 그를 만나 주셨고 회심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가 아닌가 이번 청제자 첫째 날 선포된 바울의 회심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 준다.

사실, 바울이 다대세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어린이들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 알고 있고 그 생각하는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는가 어린이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광범하게 보이는 구절에서도 놀라운 진리들을 수없이 발견한다. 첫째 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바울을 사탄이 한 번만 뺏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에 대한 깊은 기쁨과 사탄을 가지고, 어린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록 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사 55:3).

독감은 기침을 하고 뽀뽀를 하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고 이전 것은 다 차가되고 완전히 새 것이 되기 때문이다(고후 5:17). 그러므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 1. **기도(2월)** - 거듭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으로 깨어, 성령 안에서 무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살전 5:17, 골 3:2). 거듭난 사람은 모든 일에 열려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룬다(골 4:1).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천사처럼 속박 때문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를 감지하여(사 7:1),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 감시하며(골 3:1), 하나님의 구원에 감시하며(골 6:17),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에게 주는 소리를 감시한다(골 3:5). 우리에게는 이런 내공의 감시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내공으로 사탄에게 얼마나 가까이 감시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 과연 거룩한 사람인가? 신실하게 기도하며(골 3:21), 혹시 바쁜 생활을 핑계로 기도를 멀리하지는 않는가? 다른 일은 포기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골 6:4).
- 2. **전도(3월)** - 거듭난 자는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평생 전도하였다(행 13:1). 바울은 믿고 자애의 이름으로 전도한 것이 없었는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을 전하는 일을 순수하게 전하였나(골 2:14).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을 전하고 인

[참고 요한 8:12말 - 금요절]

십자가의 승리

1부 예수 그리스도

3. 천국의 메시지(2)

3) 단호하고 엄한 심판을 선포함

천국 메시지는 삼면에 관하여 매우 단호하고 엄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은 본질상 악한 존재이며, 이 세대는 유권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골 8:38). 또한 세상이 예수종지하는 모든 보물을 한 영혼보다 못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마 16:26). 많은 사람들이 외식과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했으나, 예수께서는 사탄들 중에 노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를 받는 것이라며 싸늘하게 말씀하셨다(마 16:23).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성전을 시끄러운 장터로 만들었으나, 예수께서는 맹렬히 저항하며 싸우셨다(마 21:7).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다함과 같이 부르셨다. ‘회심한 무렵’ (마 23:27). ‘말씀과 악덕이 가득한 이리석은 자들’ (마 11:33-40). ‘조금씩 되어 조금씩 인도하는 자’ (마 15:14). ‘마귀의 자식, 거짓말쟁이’ (마 8:44 참조). ‘외식자’ (마 23:13-15 참조). ‘독사’ 자식들’ (마 23:33). ‘강도의 굴뚝을 만드는 자들’ (마 11:17) 등등. 또한 일하는 자들을 고해하지 말라 한 산자라 아닌 사람들을 일컬어 ‘벌레를 행하는 자들’ (마 7:23)이라고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조물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마 25:41). 이러한 자들은 ‘거지 없는 불’ (마 9:43)에 던져질 것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가? 구원을 가져오는 천국의 메시지에 의해서 도리어 정죄를 당하고 재주를 부는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이었다.

4) 줄잡고 기쁜 사랑의 소식을 전함

천국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사랑을 보여 주는 줄잡고 기쁜 소식이다. 예수께서는 ‘제비와 죄인의 친구’ (마 11:19)라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전해 주셨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마 12:17) 곤란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마 11:28). 그리고 연약한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다(마 19:14,15). 또한 외로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마 9:13).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시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었고 그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 주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 이 세상 이치에 이치만 복되 고 즐거운 소식을 들을 수 있던 말인가! 이 세상은 거짓없는

기쁨을 주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구하라.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사귀어 참된 기쁨을 얻어야 한다.

5)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함

천국의 메시지는 은혜를 베풀어준 뿐만 아니라 맹렬도 내린다. 천국의 메시지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천국의 왕께서는 어중간하게 계 만는 믿음이야. 뜻밖에도 믿음이야. 맹목하는 순종을 가슴속까지 여기진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결투를 사귀어라 바쳐라 한다. 누구든지 천국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쳐야 한다(마 14:33, 마 16:24). 천국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마 10:37). 자기 자신을 위하여야 한다(마 14:33).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만 섬겨야 한다(마 16:23).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마 12:25). 이것이 천국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천국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으 구한다(마 12:29-30). 겸손과 자기 부인,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진기한 것도 요구한다(마 12:32,34).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 위에 천국 왕의 요구에 순종했자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우물뜰는 사람은 얼마나 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미망한 의무를 다했을 뿐 이라고 말하며 더욱 겸손해야 한다(마 17:10).

6) 사랑의 소망을 전함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그 때에는 슬피도 함께 있을 것이다(마 24:41). 이는 천국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 천하를 다 내려 복음을 전해야 한다(마 28:19-20). 예수의 이름으로, 조 직사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마 24:47). 예수복음과 유대 사마리아를 광 광케 이리리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의 왕이 나타나실 때에는 왕국도 우리 눈에 보일 것이고,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은 그 왕국의 통치권을 상속받을 것이며(마 25:34). 왕국에는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자들이 있다(마 13:43). 이것이 천국의 메시지가 주는 소망이다.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소망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갈 것이다. 천국에 복을 주는 들은, 그것의 소망을 붙잡자. 소망 없는 자들이 낙심하지 말자. 천국의 메시지가 주는 소망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거침으로 힘차게 걸도록 하라.

간직인 방법을 찾아 해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깝은 일이다. 갈바리에는 미련해 보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오직 그를 구원한다. 자신들을 구원하는 데 복음만큼 능력 있는 방법이 없다(마 28:19).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3. **3차에 5월** -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지혜로 행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보물과 그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지혜이다. 이런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골 4:12-13). 혹시 어려서 우리 자신의 의지로 고집할 때 살고 있는 젊은이? 우리 자신을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사와 단호하게 지킬뿐 아니라, 세상이 되지만 한과 같이 우리 자신을 부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행해야 한다(요 12:26). 우리가 겸하여 할 길은 오직 이 길 하나뿐이다.

4. **4차에 5월의 신령의 은사(6월)** - 갑작스러운 믿고 있던 은사를 어떻게 다루는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모든 행상에 이르는 은사를 표현할 수 있다(히 4:27, 5:13, 12:17). 갑작스러운 은사(6월)도 노력과 애써서 드러내는 신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감미 소망이 아니라 의의의 은사(6월)도 드러하지 않고도 드러내는 은사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청지기들은 언제나 부족한 자들이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사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눈물로 간구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봄으로써 그 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참된 증거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드러나 보일 것이다. 아멘

CENTURION CRUCIFIER

"Now the centuri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keeping guard over Jesus, when they saw the earthquake and the things that were happening, became very frightened and said, 'Truly this was the Son of God!'" (Matthew 27:45~54)

The men who actually nailed Jesus' body to the cross were Roman soldiers, under orders by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One of these men was a centurion, an elite soldier. The Bible doesn't give any details about this man. We don't know his age, nationality, personality, strong or weak points, family background, schooling, or career highlights. All we know is that he was a Roman centurion stationed in Jerusalem who executed Jesus on the cross. We can surmise that he was a good soldier dedicated to the Roman Empire. What's amazing is that in today's Bible passage we hear his sermon! We see his testimony!

When we look through the events in Matthew 27 leading up to Jesus' death, we see the conflicts that the centurion witnessed. The chief priests, scribes, elders, and Jewish crowd were yelling and screaming for Pontius Pilate to crucify Jesus. Pilate, not finding any guilt in his prisoner, wanted to release him, but the multitude wouldn't allow it. Therefore, under crowd pressure, Pontius Pilate's judgment released a criminal and charged an innocent man. His judgment, to have Jesus scourged and crucified, is the most atrocious judgment ever made in this world. Nevertheless, who actually carried out this order? The Bible tells us that Pilate's soldiers, in particular, the centurion did it. This man saw the injustice, the unreasonable persecution of the crowd. He saw Jesus mocked and abused, but never fighting back. He saw Jesus walk to Calvary, beaten and berated, but never complaining. He heard Jesus' beautiful words as they were crucifying Him,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Lk 23:34). He heard Jesus speak to the robber who believed in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43). Indeed, he saw Jesus' love given even unto death. He saw the most respectable religious leader murdered. He saw the most righteous man on earth condemned.

The Bible tells us, "Now from the sixth hour darkness fell upon all the land until the ninth hour"(v. 45). From noon to 3:00 p.m., the Son of God lost His light on this earth, and the people of this earth experienced complete darkness for

three hours, not three minutes, but three long hours.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the rocks split, and the tombs of many saints opened as they entered Jerusalem. What a frightening experience to occur in the dark. With all this going on, the centurion heard Jesus cry ou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He heard Jesus say with His last breath,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Lk 23:46).

The Jewish religion ended with the torn curtain. This special veil separated the Holy of Holies from the rest of the Temple. Its supernatural tearing showed that God did it, not man. It signified that the new and living way was now open into the presence of God. The earth and its rocks mourned the passing of Jesus. Remember, Jesus once told the Pharisees that if God's people were silent in their praise of Him, the rocks would surely cry out (Lk 19:40), and they did! Not only that, but many of God's people who had died prior to Jesus' resurrection were raised from the dead to witness His power and glory. Amen!

The most terrible man, the centurion, knowing the conflict, seeing the signs, doing the worst possible acts in executing the most righteous man, finally confessed, "Truly this was the Son of God"(v. 54)! This was the man who made sure Jesus was dead by piercing His side with a spear. This was the man who carried out terrible actions against the Lord of Lords. At the last moment of Jesus' breath, it was he, not the disciples, not Peter or Paul, but at the foot of the cross it was the centurion, the enemy, the most horrible man who preached God's truth, "Tru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Mk 15:39)!

Let us pray, "Thank you Lord Jesus for using the worst sinner to declare You are the Son of God. Thank you for using me, and all who fall short of your glory. Open our hearts dear Lord to proclaim to other people that You truly are the Son of God. Let Your Holy Spirit gives us the words to tell the simple gospel story of God's loving act of reconciliation of men to Himself in You, His Son, our Savior, who lived and died for all men. Like the centurion, let our mouths confess Your truth. Amen." 🙏

다음주일 설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

“...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 27:45~54)



김성원 목사

충격적인 전도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정예(精銳) 군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신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나이도, 국적도, 성격도, 장단점도, 가정 환경도, 또한 교육 수준이나 경력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라고는 다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가 로마 제국의 충성스럽고 훌륭한 군인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설교, 곧 그의 복음 전도를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 제국의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비열한 재판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목격했던 바 사람들 간의 날카로운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유대 군주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향을 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군주들은 죽기 살기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살인자 바바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맙니다. 이처럼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빌라도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재판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목격했던 것들

하지만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빌라도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행해진 불공정한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그는 대중의 타부니없는 비방과 때때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저주하여도 예수님은 한 마디 대꾸나 저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육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눅 23:34). 그는 또 예수님이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하였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설마 그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행할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백부장이 흠악 속에서 들은 것들

성경은 말합니다. “제 육 시로부터 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라”(마 27:45).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은 세 시간 동안 완전한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긴 세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성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고, 땅은 진동했으며, 바위는 갈라졌고,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흑암 속에 진행되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백부장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끄러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46절). 또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니”(눅 23:46)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의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순간, 구약의 유대 종교는 끝이 났습니다. 본래 성전의 휘장은 성전의 다른 부분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땅과 바위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던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 19:40)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땅과 바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사형 집행자의 기이한 고백

본래 백부장은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이 예수님을 무고히 비난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54절). 여러분, 예수님의 열구자를 창으로 찢어서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한 사람도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리를 선포했던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베드로나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리를 선포했던 사람은 가장 잔인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함께 기도합니다.

어찌 다 감사하오리이까?

죄인 중의 괴수를 사용하사

당신의 성자(聖子)되심을 선포하시다니요,

어찌 이루 감사하오리이까?

미천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다니요,

사랑하는 주여,

우리 마음 문을 여시사

당신의 사랑의 아들들이심을 선포해 하소서.

만민을 위하여 사셨고 죽으신 당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당신 안에서

죄인들을 회향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역사!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입에 진할 말을 주소서.

백부장처럼

우리의 입도 당신의 진리를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0월 3일(금)-10월 11일(토)	스리랑카	5교구 4지역	정대동
10월 3일(금)-10월 11일(토)	스리랑카	5교구 5지역	양승길
10월 3일(금)-10월 11일(토)	스리랑카	5교구 2지역	정성훈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22일(화)-9월 30일(화)	인 도	15교구 5지역	이장근
9월 25일(목)-10월 6일(월)	키르기스스탄	1교구 1지역	이보신
9월 25일(목)-10월 6일(월)	키르기스스탄	1교구 2지역	이승득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16일(화)-9월 24일(수)	우즈베키스탄	13교구 7지역	장철규
9월 17일(수)-9월 26일(금)	네 팔	1교구 5지역	김창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가리아를 다녀와서

이 현 실 (권관, 4교구 2지역)

나같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에게 선교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처음 떠나면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역지에 도착한 첫 날, 경전회를 마치고 첫 번째 집사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열약한 환경에 놀랐고, 아이들의 순수함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는 집사들과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없는 땀방아에서 마미와 찬송을 하고 글 없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가슴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부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사역에 임하였고 팀장들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챙기며 합심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오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준비기간 동안에도 계속 집사 사역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거의 집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태우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터키계 집사 출신의 무슬림이었는데 팀원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전도로 그 기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한 집사 마을에서는 할례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란한 음악소리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팀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이끌어서 그 곳에 가보니 한 남자가 몹시 불편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했는데, 한없이 기쁘면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에는 경전회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여행객이라고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경전서에서 한참을 잡혀있었습니다. 처음 경전차를 타고 잡혀올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담담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풀어주시길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곧 통역하는 자매와 연락이 되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도 팀원들 모두가 더 다져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일생 처음 다녀온 선교였지만 당황보다는 기쁨이 더 컸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확실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

외교권 선교

단기선교팀이 외교권을 선교하면서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 곳의 선교사들과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외교권을 다녀온 사람들이 외교권에 대한 선교방법을 부탁하였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외교권처럼 위험한 곳이라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바울이 무모하게 이유 없이 위험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지혜롭게 처신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외교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외교권은 세 종류로 분류된다. 회교 이외의 어떤 종류의 종교도 용납하지 않으며 선교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나라(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등)와 국가가 회교이며 공개적인 선교는 금지되어 있으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 허가되어 제자 양육이 가능한 나라(터키, 이집트 등), 종교가 자유이며 공개적인 선교도 허가되었으나 오랜 회교문화로 선교가 힘든 나라(중앙 아시아 국가들)이다. 첫 번째 경우의 나라들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고 친구로서 복음을 권장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의 나라들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공개적이지만, 일대일의 복음 전하는 가능하다. 물론 노방전도는 쉽지 않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들의 경우는 아직 이 방법들 이외에 시도되거나 논의된 방법은 없으며, 이 방법들에 의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회교 권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중원교회가 단기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세 번째 경우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비자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 외교권을 선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인 직접 전도나 교회를 세우는 일도 가능하다. 다른 지역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러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미 많은 중앙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속도가 비외교권보다 느리며, 사람들이 타 종교에 적대적이다. 그리고 아직도 관료들의 회교적인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할 경우 현지 선교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항의를 들은 팀도 있었는데 이는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를 할 경우 당연한 일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일단의 방법은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며 회교의 방침이다.

선교 방법이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크게 나뉘지는 의견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단 구제 등을 통해 천천히 기독교 문화를 전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방법과 충돌의 위험이 있어도 회교가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알리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방법이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복음을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충돌과 꺾박, 신고, 추방까지 감안한다면라도 성경 말씀을 따라 행위나 기도, 모란땀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야 한다. 특히, 회교권 선교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교권 여성들의 경우 회교 자체에 불만을 품는 여성이 40%인 것(한국 총회 신학 대학교 선교 대학원 1998년 자료)와 문화의 단절을 요구하는 회교권의 교리에 대해 젊은 지식층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현상(예멘, 수단 등)의 강력한 회교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해 여성과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다. (선교위원회)

2003년 중원교회의 단기선교 파송현황 (10월 3일 까지)

선교지	신청팀	사역중인 팀	사역 나날 팀	사역 완료 팀
네 팔	1팀			10팀(100명)
도미니카 공화국	1팀			1팀(11명)
리투아니아	2팀			2팀(21명)
몰도바	2팀			2팀(18명)
몽골	7팀			7팀(70명)
방글라데시	7팀			6팀(59명)
불가리아	20팀			17팀(175명)
스리랑카	21팀		3팀(27명)	14팀(143명)
올렉산드리아	4팀			4팀(43명)
우즈베키스탄	10팀			11팀(109명)
우크라이나	4팀			4팀(40명)
인도	24팀	1팀(10명)		14팀(133명)
키작호스탄	21명			20팀(191명)
키르기스스탄	14팀	2팀(18명)		12팀(119명)
필리핀	1팀			1팀(13명)
총계	155팀	3팀(28명)	3팀(27명)	125팀(1,244명)

주일설교 후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롬 12:9).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입니다. 사단, 마귀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랑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리에 충실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온전케 헌신해야 합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랑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가지 유익을 가져다주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요일 5:1).

참된 사랑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랑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백운하)

오직 믿음으로

웬같은 사람들

웬같은 사람들. 이들을 얕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웬같은 등장인물들은 잘잘못을 웬법에서 찾는다. 친구들은 웬이 웬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웬은 과거에 자기가 베풀었던 선함과 칭송받은 신앙을 근거로 대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두 죄인임을 몰랐을까? 웬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 그래서 웬법을 중심으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자들이었다. 웬의 경우, 구약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웬 19:25,26).

그렇다면 왜 이들은 웬법의 잣대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며 죄인들이 만든 구조와 인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계속 언급했다.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말에는 사실 상 오류가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듣는 우리도, 그것을 말하는 자신들도 그 오류를 쉽게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런데 엘리웃이 ‘웬의 말이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답답해하며 웬의 오류를 지적한다(웬 32:12).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규칙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웬과 친구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말의 오류의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웬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은 무죄임을 말한다. 친구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저 죄없는 자들, 선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느냐고 반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이들은 사람들의 시각, 웬법의 중심을 갖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들의 특수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다. 현대의 성도들 역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웬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웬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웬을 특별한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웬은 우리이다. 웬이기를 기록한 이유는 웬을 닮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특별히 큰 죄인이 있었다고 밝히고자 함도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잣대가 얼마나 무모하고 세상에 편승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함이요, 그 잣대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무너뜨리고 함이다. 웬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므로 믿을 수 있지만 사단 역시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웬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웬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는 사단이 이용하는 하나님의 웬법에 대해 성경을 통해 생각해보자.

(권오섭)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값은 팔파와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대를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요? 깨닫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 죽으셨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한게 다가요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감사와 사랑입니다. 죄인이기에 죄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처럼은 되지 않으려고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특히 주께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찬양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마음을 만들어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남승은(정학성)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다른 사람에서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은 것을 볼 때가 있다. 이럴테면 나의 열등함,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가졌던 희망 등을 본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를 보면서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보고픈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저인 모습이 추하든, 아름답든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낯설다.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그를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할 줄 아는 예의와 더불어 나와 공감할 줄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녔을까 기다리는 인내도 배운다. 성도는 자신과 많이 다르더라도 가장 공통되고 아름다운 향기, 그분을 이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귀한 향기를 지녀야 한다.

그 향기를 지니는 때에는 시간이 걸린다. 똑딱, 똑딱.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초침소리이다. 무엇으로부터인지 왜곡되고 짓밟혀진 하나님의 아름다고 소중한 선물을 다시 깨어 얻어보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 있었지만 예수를 알고 있는 지금은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를 회생하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불쌍한 이웃에게 나누주려고 하였고 심지어 원수 같은 이웃에게도 그리하라 하셨지만, 나의 20여년 숙성된 신앙을 보며 예수의 분신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원수 같은 이웃이 있는가? 수십 년 하나님을 알아오며 나는 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통해 앞에서 저방임을 드러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묵욕하는 뱃새마를 보며 고개를 돌리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만 남지런 것들을 잊지 못해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정답치만 결정적인 죽음의 형박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지도 모른다. 이십 여 년 동안 주님을 알아왔지만 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른다.

이제 그 선물을 다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고이 넣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단 한 장치를 박차고 나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머뭇거림을 이겨내려라도 내뱉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주의 은혜였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용기이며 서로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사랑이다. 맞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로 사랑해야 함이 옳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의 규범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용기를 지니 못마땅도 세상은 그들처럼, 사랑의 향기가 악마보다 세상의 썩어가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오늘날 내 생명과 소망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같이 사랑하게 해 달라고.

백경선(대학부 교사)

오직 예수

빛줄기가 세상에 내리네.
온 천지를 다 짙시네.
괴암이 썩어지고, 곡식이 썩어가 되어 썩어 가네.
높이만 자는 자야만, 커져만 가는 교만이
온 세상을 썩어네.

내려 노세 내려 노세.
기득권도 전횡도 세상의 지식도 인간의 자예도
외개 하세 화개 하세.
주님이 더 높노라기 전에, 주님이 꼭 막나사기 전에,
주님이 도우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기 전에

감사 하세 감사 하세.

오직!

주님 자비 구하고 나 십자가 지고

주님만 높이세.

조중민 (안수절사, 7교구)

나그네와 행인같은 우리

황 선혜 (권사, 장년부 교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영적인 땅,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그네같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 자신을 맡깁니다. 또는 시기와 분쟁과 원망이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하는 길이 고달프고 외로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있기에 감사와 기쁨의 물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빌 3:20).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 손잡고 가소서, 우리 손을 굳게 잡고 가소서. 미움과 갈등도 없고 이별의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곳으로 저 천성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붙들어 주소서. 그때 그곳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하소서. 아멘.

주요모습

17교구 신흥주공 구역 김준호 집사

교통사고로 대퇴부가 골절되었습니다. 메스티안 병원 309호에 있으며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불편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빨리 치료하여 다시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7교구 수내 구역 김영숙 성도

음식을 먹기가 힘들고 갑자기 몸이 쇠약해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012호에 입원했습니다. 쾌유를 위하여 그리고 몸은 쇠약해졌어도 영혼은 강건하여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울스터’에서의 부흥

1859년에 아일랜드 울스터(Ulster)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는 교회도 있었고 복음 전도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고,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흥의 역사가 한 두 사람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몇 명의 사람이 매주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씩 성령을 부어주시어 복음 전파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모임은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복음 전파의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아, 단지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기를 부으심이 있도록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각 교구 안에 더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보를 묻고 방법을 묻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역사와 복 주심을 구하는 일이 더 풍성히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 황무지였던 ‘울스터’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단기 선교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가는 아이작 왓츠(Isaac Watts, 1674-1748)박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1707년에 작시하였다. 이 찬송의 곡은 1824년에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박사가 조지아 주 세바나에 살 때 작곡한 것으로서, 그곳 제임스 로교회에서 처음 불리워졌다. 작곡자 메이슨 박사는 16세 때 이미 찬양대 지휘자요, 음악학교 교사였으며 독학으로 공부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의 찬미가 사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 1절: 영광의 왕이 죽으신 그 기이한 십자가 나 생각할 때에
내 모든 부요도 해로 여기고 내 모든 자랑도 멸시하게 되네
- 2절: 주여, 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결코 자랑을 맡게 하소서
내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모든 헛된 것 주의 피 안에서 버리네
- 3절: 보라, 그 머리의 손과 발에서 슬픔과 사랑이 섞이어 흘러내리네 이처럼 사랑과 슬픔이 어우러진 적 있었던가? 가시로 그처럼 부요한 만류관 만든 적 있었던가?
- 4절: 온 세상 다 내것이라 해도 주께 드릴 선물로는 너무 작아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거룩한 사랑이냐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드려야 하네, 아멘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총천 선율에도 하영구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77	복진동	1 장년2부	구원길(1)	1185	평혜순	7 장년1부	조숙진(7)	1195	이정민	15 대학부	남정숙(15)
1178	정화아	2 대학부	심효숙(2)	1187	정학민	7 장년1부	조숙진(7)	1196	김민진	19 장년1부	박정자(4)
1179	이종구	5 소망부		1188	정은선	7 장년1부	조숙진(7)	1197	이정희	19 대학부	박효진(16)
1180	김덕수	5 장년3부		1189	박사하	9 청년2부	김윤순(9)	1198	정승연	19 대학부	박효진(16)
1181	이정환	5 장년2부		1190	김금자	15 장년1부	황호선(8)	1199	김은정	19 대학부	김원순(5)
1182	이희관	5 청년2부		1191	변정환	12 청년2부	전혜숙(4)	1200	임계정	19 대학부	최용영(5)
1183	이영환	5 장년2부		1192	윤상자	15 장년1부		1201	시타	19 외선부	박수진(17)
1184	손금자	6 예배대부	박민기(1)	1193	김정봉	15 장년2부		1202	채태복	19 외선부	박수진(17)
1185	장지호	6 대학부	박민기(1)	1194	송예스리	15 청년2부		1203	이이린	19 외선부	박수진(17)

※ 총천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후 하늘 영광

이 희 석 (목사, 중동2부지도)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감격과 기쁨에 넘친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계속 머무르자고 청원했습니다(막 9:5). 사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들을 위해 천막을 세워 환대하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관습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당시 베드로는 변화산 상의 찬란한 장면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진리를 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로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힘들게 사는 삶을 위하여 현재 누리고 있는 감격과 행복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칫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와 더불어 있었다는 점입니다(막 8:31). 이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한 사색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루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결코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한 하늘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수난 예고에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날에도 현재의 축복과 세상의 부귀 영광만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좇다보면, 당시 제자들처럼 신앙이 혼신되어 마음이 심히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들은 “십자가 고난 후 하늘 영광”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후반기 교사양성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교사는 사명의

식,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각 지체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지만, 모두 말씀을 읽고 가르칠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이를 대하지 않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 4:13). 이에 교사양성부 교육을 매 양심이다 요약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1강 성경의 맥잡기

성경은 제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를 산 여러 명의 기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진리는 통일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간들을 위해 대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말씀을 분석한다면 해도, 성경에서 그 눈을 여시고 도와주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리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뻗혀서 모든 자신의 이성과 지혜에 의지하여 말씀을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의를 가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 안에 지식으로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있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맥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람이 무엇인지, 천사들도 놀란 이 사람이 실로 어떤 것인지 알기를 다독 간구하십시오(벧전 1:12).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나게 의지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실로 진실로 알기 원한다고, 더욱 깨닫기 원한다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이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한 은혜가 우리를 교사로 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만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새우심을 입었노라”(딤후 1:11).

(원대원 기자)

〔 믿음의 학교에서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편 23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1절).

여호와와 분봉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왜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지 않는가 반성해 봅니다.

성경은 가뭄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방향각각이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또 깨끗한 목자만 아주 쉽게 드러워집니다. 혼자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또 양은 배가 고프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절대로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기 많은 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2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참다운 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할 때(의 길의 길을 가려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므로, 지금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나?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4절).

양은 어느 길이 평안의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이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자꾸 다른 길로 벗어나려는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로 인해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내가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처럼 약해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대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

(권영일 기자)

애도하는 마음을 물려주자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왕이 독살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왕이 마실 모든 음료를 관리하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중책을 맡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거리인가! 오늘날 같으면 ‘느헤미야 성공법’이라는 제목으로 두툽한 간증집 한 권쯤은 나와야 하지 않았는가! 어찌 저기 다니며 ‘느헤미야 성공법 세미나’를 열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법을 밝히지 않았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물론 자신이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을 살짝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다음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느 1:2).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주저없이 수일 동안 슬퍼하였고 급식하며 기도하였다(느 1:4). 기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늘날의 대중적인 기독교는 느헤미야를 철출하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도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니 슬픔 속에 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느 12:43). 느헤미야가 고위 관직에 올랐기 때문에 천국의 일꾼이 되었었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열려하고 애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시고 천국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천국의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참된 일꾼인가? 느헤미야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열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사람이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곤경한 상태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느헤미야처럼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난과 교회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답은 오직 하나 뿐이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수중에 거머쥐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곤고함을 가슴 아파하고 애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인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마르도록 어찌하게 그들을 눈물과 애痛的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었는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씻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세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도록 하자. 천국 일꾼의 양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았는가!

(권영일)

